

# 환경과 삶의 질

정 대 연

Environment and Quality of Life

Dai-Yeun Jeong

*Professor of Sociology, Cheju National University*

## Summary

Nowadays, environment is becoming 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which should be solved on a co-acting basis in the world in a comprehensive way. However, it is true that the environment has been treated in terms of natural environment only without relating with the nature of human being's life. It has been resulted as a thing like environment for environment itself. It should be noted that environment can be an important thing when it is related to human being, especially quality of life.

In accordance with such an implication of environment, this thesis presented the concept of environment in a comprehensive way including both human-made and natural one, and reviewed the various perspectives on environment. The thesis, then, specified what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and examined the causes of environmental problem with their interrelational mechanism.

After this, the thesis examined the concept of quality-of-life and its components, and fin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quality-of-life. Based on the findings specified above, the thesis suggested a new comprehensive approach to environment in relation to the quality-of-life.

## I. 연구목적

사람도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동식물과는 달리 환경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회관계도 삶의 한 과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존재이다. 이 때문에 사람은 먼저 환경에 적응하거나 또는 환경을 극복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관계를 원만히 하여야 비로소 보람된 삶

을 영위할 수 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거나 또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였고, 사회관계의 질서를 위해 여러 가지 규범이나 제도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공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결국 사람이 환경에 적응 또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사람 스스로가 만든 자신의 멍에로서 현대 사회의 하나의 위기이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환경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구성요소 또는 삶의 과정에 필요한 하나의 필요조건이라고 인식하고, 나아 가서 사람은 적어도 환경과 공존해야 한다는 겸허한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오늘날 환경문제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심각하고, 국가와 사회체제를 초월한 전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발전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고, 나아 가서는 삶의 가치 및 우선 목표의 순위를 재조명하고, 그리고 장기전망을 재검토하게끔 한다. 이 때문에 환경문제는 사회문제 및 경제문제 등 모든 문제와 얽힌 하나의 새로운 총체적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문제는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인간의 삶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문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인간의 삶의 문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적어도 인간에게는 의미없는 논쟁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사회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연환경에만 국한시켜 자연환경의 오염,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에만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총괄적으로 정립하고,

둘째, 사회과학에서 환경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그 관점을 정리하고,

셋째, 환경문제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며, 환경문제가 왜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을 규명한다.

넷째, 그리고 환경과 삶의 질 간의 메카니즘을 정립함으로써,

다섯째, 환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한다.

## II. 환경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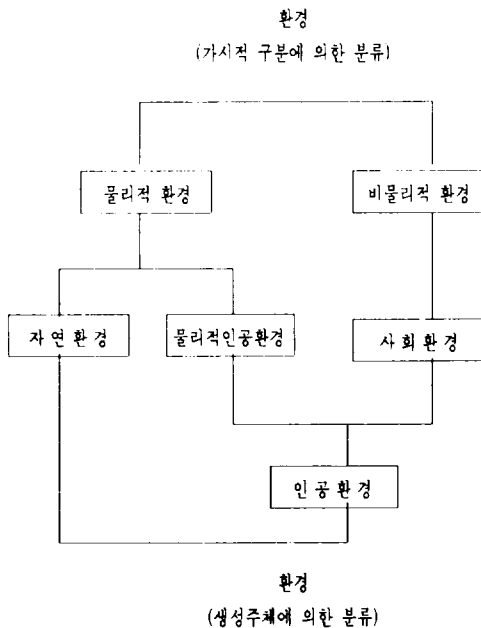
모든 개념이 그러한 것처럼 환경도 주체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진다. 그러나 환경의 개념은 적어도 인간을 주체로 하여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을 주체로 한다 하더라도 주체의 규모를 개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전체 사회를 주체로 설정할 수도 있다. 개인을 주체로 할 때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 나아가서는 전체 세계도 개인의 환경이 된다. 여기서는 이들을 모두 묶어서 인간을 주체로 할 때 환경이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인간을 주체로 할 때 넓은 뜻으로 보면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일체'를 뜻한다. 즉 환경은 인간이 배경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연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 나온 여러 가지 요소, 그리고 문화를 통해 인간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요소들은 모두 환경에 해당된다(Caldwell, 1971). 반면 좁은 뜻으로 보면 환경은 물리적 환경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경우 환경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필요로 하고 인간의 개성과 삶의 목표를 개발시켜 나가는 데 긴요한 물리적 상황의 결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Ross, 1970). 이렇게 보

면 인간의 유기체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환경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설사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존재물이라도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적어도 인간에게는 환경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Sills, 1980: 91).

이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할 때 환경은 형태의 可視性과 창출의 人工性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기초하면 그 종류를 <그림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 환경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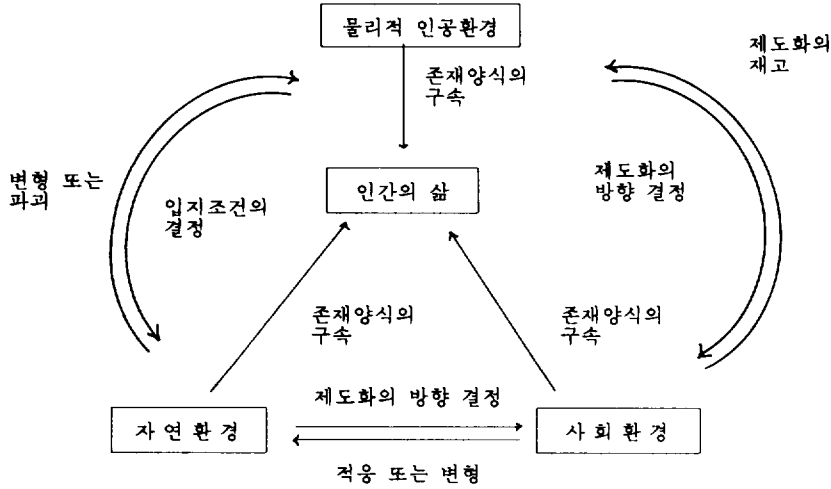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이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환경을

뜻하고, 비물리적 환경(non-physical environment)이란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환경을 뜻한다. 반면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이란 공기, 물, 매장광물, 자연경관 등과 같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을 뜻한다. 여기서 자연의 법칙이란 사실 또는 사물들 간의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원리를 말한다. 자연환경은 그 구성요소들간의 균형과 조화를 본질로 하고 있고,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그 자신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객관적 법칙에 따라 운동한다. 자연환경은 가격으로 환산될 수는 없지만 실질소득이나 후생의 한 부분이다. 물리적 인공환경(physical built-environment)이란 건축물,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 및 공장 등과 같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도로 인간 외부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삶의 방식에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 환경(social environment)은 제도, 규범, 문화, 사회조직, 기술 등과 같이 인간사회의 질서와 능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도로 인간 외부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삶의 방식에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공환경이란 인간의 삶의 편의와 능률을 위한 가시적인 것과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계약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말한다.

<그림 1>에서 환경의 각 구성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는데, 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환경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결국 핵심적인 것은 자연환경, 물리적 인공환경 및 사회환경이다. 이 세 가지 환경은 결국 인간의 삶의 방식을 구속하는 외적 조건들이다. 이들의 상호 유기적 관계는 <그림 2>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는데, 이것을 환경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환경체계



### Ⅲ. 환경에 대한 관점 및 환경문제

#### 1. 환경에 대한 관점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경향이 다음 세 가지로 특징지어진다. (1) 동양과 서양에서 자연에 대한 관념이 다르고, (2) 인간의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관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3) 환경에 대한 관심은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통해 자연환경에 대한 것이 핵심을 이루었고, (4) 사회환경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 사회생태학에서 시작되었다.

(1) 동양과 서양에서 자연에 대한 관념 :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어떠한가에 의해 그 대상에 대해 전개하는 행위의 방향 및 유형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연관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전개하는 행위의 방향 및 유형을 결정지어 주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관에 기초하여 인간이 자연에 대응한 결과 환경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관이 환경문제 발생의 가장 원초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은 기본적으로 자연관이 다르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White, 1967; Toybee, 1972). 동양의 경우, 예컨대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관념에서 천(天)은 단순히 하늘이라는 실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로서의 '자연의 법칙'을 뜻한다. 이 관념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는 자연관이다. 이 관념에 기초하여 동양에서는 집을 지을 때 방향, 경조사나 이사 날짜의 택일 등 자연에 순응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 일상생활에 나타났던 것이다. 반면 중세 때까지 기독교 교리가 생활규범으로 되어 있었던 서양에서는 자연은 인간의 아래에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동양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관념에 기초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서양은 인간은 자연과는 별개의 존재로 보면서 인간을 위해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중심주의의 관념이라고 하겠다. 서양의 이러한 자연관이 결국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動因으로 작용하였고, 동양의 관념은 기술개발의 실용성보다는 정신문화의 발달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동양과 서양이 하나의 체계 속으로 묶여져서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동양에서도 이제는 인간중심주의의 자연관이 지배적으로 대두되었다.

(2) 인간의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문에서 논의되어 온 자연환경관 : 인간의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 학문에서 논의되어 온 자연환경관은 크게 환경결정론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 및 경제결정론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박동원과 손명원, 1990).

먼저 환경결정론적 관점을 보면, 이 관점은 과학기술의 수준이 낮았던 1900년대 초기에 대두된 것으로서 '인간의 생활양식은 근본적으로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이 관점은 인간의 능력에 비해 인간 이외의 생태계의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서 자연환경이 인간의 삶에 대해 갖는 중요성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목적론적 관점의 경우 우선 목적론이란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 역사 등 모든 현상은 인간의 효용과 위안을 위해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이다(정대연, 1995). 이 관점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적 사고와 일맥 상통하는데, 아마 현재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 야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결정론적 관점은 인간과 자

연의 관계는 경제원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경제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이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관점으로서 목적론적 관점과 더불어 오늘날 환경문제 야기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환경에 대한 관심 : 1869년 독일의 생물학자 E. Haeckel이 생태학(ecology)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생태학이란 '동식물들이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 및 환경을 배경으로 한 그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라고 규정하였다. 이 생물생태학의 기본틀과 개념들을 인간사회의 분석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회학자들이 E. R. Park, E. W. Burgess, R. D. McKenzie 등이다(정대연, 1989). 이들은 인간의 행위와 활동도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의해 그 유형이 결정지어진다는 환경결정론적 입장에 기초하여, 이 분야의 연구를 인간생태학(human ecology) 또는 사회생태학(social ecology)이라고 명명하고, 환경을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사회생태학은 다양한 시각과 분석기법으로 전개되어 왔으나(그 구체적 전개과정은 정대연, 1989를 참조할 것), 그 핵심적 관심은 환경, 특히 사회환경이 인간의 삶의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왔다. 이러한 사회생태학에서는 인간도 기본적으로 자연의 일부로 보면서, 인간과 자연환경은 적어도 공생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생태학에서는 자연환경보다는 개인간 또는 집단간 경쟁이나 공생, 교육이나 주거 조건 등과 같은 사회환경이 인간의 삶의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환경결정론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 및 경제결정론적 관점과는 구별되는 환경관이다.

## 2. 환경문제의 뜻

환경은 그것이 자연환경이든, 사회환경이든

원래 가지고 있는 質이 있다. 이것을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이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의 질이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안전성과 쾌적성이다. 자연환경의 경우 환경의 질은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흐름의 구성 및 수준을 말하고(김정수, 1992), 물리적 인공환경의 경우 환경의 질은 삶의 편의와 능률을 목적으로 인간이 만든 시설물들의 원래의 합목적성(fitness)을 뜻하고, 사회환경의 경우 환경의 질은 자연환경에의 적응 또는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만든 제도, 규범, 규제 등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합목적성을 말한다. 여기서 합목적성이란 모든 존재물은 일정한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정대연, 1995).

따라서 환경문제라면 자연환경의 경우는 자연이 원래 인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흐름의 구성 및 수준이 균형을 잃음으로써 인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뜻한다. 반면 물리적 인공환경 및 사회환경은 원래의 합목적성에 결함이 생겨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환경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이 인간의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문제를 논의할 때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물리적 인공환경 및 사회환경까지도 포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는 지금까지 자연환경에만 국한시킨 나머지 물리적 인공환경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오염 또는 파괴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어왔다. 더구나 물리적 인공환경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오염 또는 파괴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컨대 그 영향이 인간의 건강의 문제인지 아니면 삶의 양식의 문제인지 등은 전적으로 등한시 되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문제를 추가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물리적 인공환경이 자연환경의 파괴

또는 오염을 일으켜서 그 결과 인간의 삶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둘째,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에 종착되고, 자연환경과 물리적 인공환경 및 사회환경은 서로 유기적 체계 속에 있다. 자연환경의 파괴 및 오염은 물리적 인공환경이 그 원인이고, 물리적 인공환경은 기술, 제도, 사회조직 등 사회환경에 의해 그 방향과 실체가 형성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파괴 및 오염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환경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사회환경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흔히 소년범죄가 '나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경우 그 소년이 정상 소년보다 본질적으로 다른 토양, 일조량, 물 등의 자연환경이나 물리적 인공환경에서 성장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환경이라는 말 속에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정치환경 등 수많은 사회적 속성에 따른 환경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출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지금까지 물리적 인공환경이 자연환경에 주는 영향만 관심의 초점이었고, 오염 또는 파괴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무엇인가는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전적으로 자연환경에만 국한되었는데 그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영국에서 환경성(Council for Environment)과 미국에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Pepper, 1989 : 49). 그후 1970년대 중동의 오일쇼크가 서구경제를 강타한 후 경제성장의 가치지향이 다시 대두되면서, 경제성장

에 대한 비판론과 낙관론이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예컨대 Meadowest *et al.* (1972)은 인구, 에너지, 식량, 오염 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서 선진국의 성장에 한계를 제기하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진국은 산업화를 중지하고, 선진국은 성장을 중지하여야 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격차는 성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제적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Kahn *et al.* (1979)은 비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계는 자본의 재투자와 기술혁신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격차는 오히려 후진국 발전의 動力으로 보았다. 비관론은 환경우선론적 관점으로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나 사회조직의 체제를 전환시키자는 입장이고, 낙관론은 성장우선론적 관점으로서 환경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개발하자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그림 2>에 의하면 이 통제방식의 정립은 다시 새로운 사회환경의 조성이 된다. 결국 비관론은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간을 위한 자연보호보다는 자연을 위한 자연보호의 성향이 강한 이데올로기라면, 낙관론은 합리적이고 현실적 입장을 중요시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2년 유엔 주관하에 브라질의 리오 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P)'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범세계적으로 인류의 발전가치로 채택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비관론과 낙관론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산업화 정책의 과정 속에서 산업 및 도시개발은 자연환경을 파괴, 황폐시켰고,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과정

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로 극도의 오염에 도달하였다. 이 과정은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결과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환경피해도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관심은 전적으로 무시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들면서 비로소 공업단지 중심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상의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와서는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권리의식의 향상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역중심의 환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환경문제를 사전에 극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립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움직임도 역시 자연환경의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 4.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

환경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아래의 네 가지로 귀착된다.

첫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관념이 환경문제 발생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White, 1967; Toynbee, 1972).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념이 어떠한가에 의해 자연에 대해 전개하는 인간의 구체적 행위양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경문제, 특히 자연환경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연관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양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 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는 자연존중의 관념이었다. 반면 서양에서는 자연은 인간의 아래에 있으므로 인간의 목적을 위해 자연을 개조하여도 좋다는 인간중심의 관념이었다. 서양의 이 관념이 곧 자연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이 발달되었고, 그 결과

자연환경의 파괴 및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둘째, 인구증가를 환경문제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체계, 사회규범, 기술발달 등 여러 요인들 가운데 특히 적정인구를 초과한 과잉인구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주어진 생태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동물의 수는 식량과 기타 자원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指數的으로 증가하고, 이 한계는 생산시스템의 負荷容量에 의해 결정된다'는 負荷容量의 생태학적 법칙(ecological law of carrying capacity)이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된다(Hardin, 1968)는 것이다. 즉 과잉인구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 생산이 필요하고, 그 결과 자연환경의 파괴 및 오염이 발생한다(Borgstrom, 1969)는 뜻이다. 따라서 인구증가가 환경파괴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제로 인구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예컨대 Ehrlich, 1974).

셋째, 富의 증가와 경제성장이 환경문제 발생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Schumacher, 1973). 이것은 경제성장과 환경의 질의 보전을 동시에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경제성장이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이상 환경의 질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넷째, 생산기술의 형태의 발달이 환경문제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2차대전 이후 발달한 생산기술이 합성물질이나 부식되지 않는 물질 등을 생산함으로써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었다는 입장이다(예컨대 Commoner, 1972).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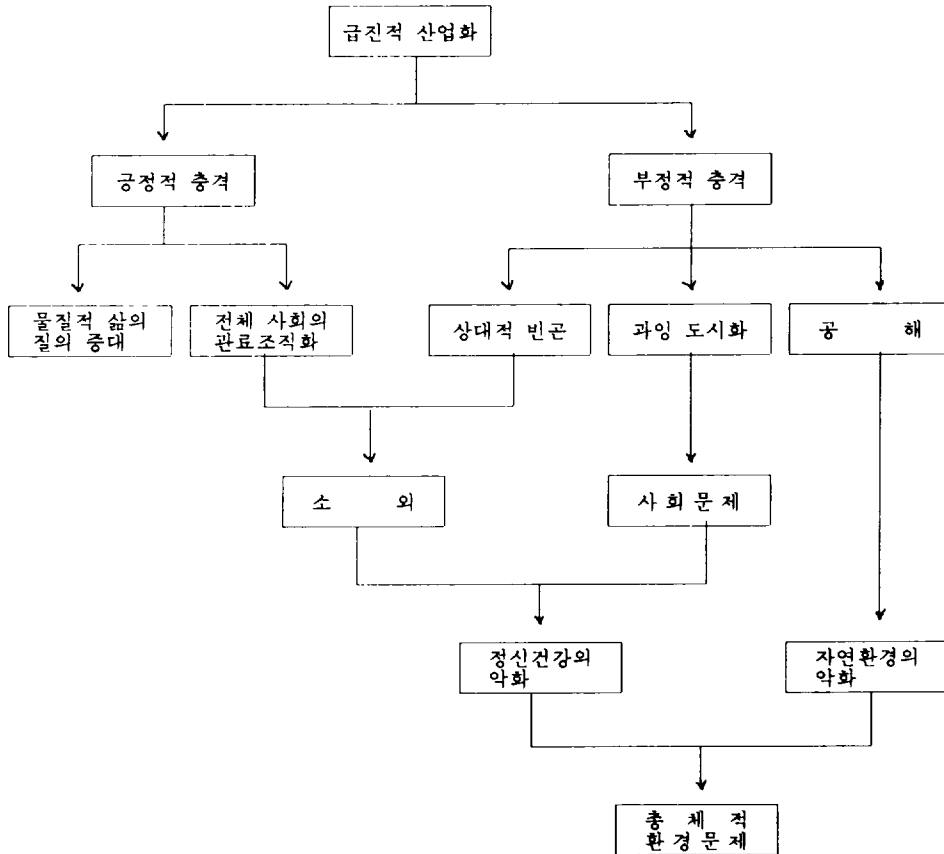
대전 이후 초기에는 생산과정에서만 오염이 문제가 되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소비과정에서의 오염이 추가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관점들은 물리적 인공환경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의 논의이고, 자연환경의 문제가 다시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이 다시 인간의 사회환경으로 되어 삶의 양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앞서 <그림 2>의 설명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연환경의 문제는 물리적 인공환경에 의해 발생한다. 물리적 인공환경은 기술, 제도, 사회조직 등에 의해 그 방향과 실체가 형성된다. 따라서 오늘날 자연환경의 파괴, 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삶의 편의와 능률, 그리고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기술, 제도, 사회조직 등이 환경문제의 궁극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환경문제 발생에 관한 위의 네 가지 원인은 결국 자본주의 제도라는 사회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자본주의가 이룩한 최대의 성과는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전환시킨 일이다. 농업사회에서는 물리적 인공환경의 질과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파괴나 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진적 산업화가 이룩되면서 물리적 인공환경이 고도의 수준으로 형성되고, 그 결과 자연환경의 파괴 및 오염이 일어나고, 자연환경의 자연환경의 파괴, 오염 등은 또 다시 인간의 삶의 방식을 구속하는 새로운 사회환경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 관계를 총체적인 하나의 틀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그림 3〉 환경문제 발생의 총체적 메카니즘



#### IV. 환경과 삶의 질의 관계

##### 1. 삶의 질의 뜻 및 구성요소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질이 좋다' 혹은 '질이 나쁘다'고 말할 때처럼 質이란 특정한 가치 판단과 결합되어 한 사물 및 대상의 속성에 있어서 함목적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질이란 한 사물을 이루고 있는 개별 속성들의 가치·등급·나쁨·좋음 등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총체적인 체계를 뜻한다(정대연, 1995). 따라서 삶의 질이란 인간이

생활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속성들의 가치·등급·나쁨·좋음 등의 총체적인 체계를 뜻한다. 이 총체적 체계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성취에서 생기는 물리적 상태이며, 또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생활목표와 가치에 대한 즐거움이다. 그러나 물리적 상태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즐거움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로서 주관적인 만족도이고(Lie, 1975)이고, 개인의 이러한 주관적 만족도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물리적 상태와는 무관하다(Schneider, 1976).

이렇게 볼 때 삶의 질이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조건과 이 조건에 대한 개개인의 주관적 태도 간의 함수관계로서 생활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주어진 조건(환경)들이 곧 삶의 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이고, 이 구성요소에 대한 주관적 태도가 어떠한가에 의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불만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삶의 질의 궁극적 종착점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편의성, 안전성 및 쾌적성으로 종합될 수 있다. 편의성, 안전성 및 쾌적성을 결정지어 주는 요소는 한 없이 많다. 그러나 이들의 의미를 범주화할 때 크게 아래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네 가지 영역이 곧 삶의 질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자연환경적 구성요소를 들 수 있다. 이 구성요소는 개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표공간, 암석, 지질, 지형, 기후, 물, 대기, 녹지공간 등의 자연조건을 말한다(예컨대 Sontag *et al.*, 1980). 이것은 삶의 질 가운데 편의성의 추구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및 쾌적성을 결정지어 주는 요소이다.

둘째, 경제적 구성요소를 들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에 경제학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경제학에서는 삶의 질을 수입의 수준(예컨대 Fox, 1974),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양 또는 소비수준(예컨대 Lancaster, 1971)의 측면에서 규정하였다. 경제적 구성요소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EPA, 1973). 하나는 개인적인 경제적 **富有**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전체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富有**이다. 전자는 개인의 수입수준 및 소유하고 있는 재화이고, 후자는 국가 전체 또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풍요함, 고용기회, 생산성, 산업의 다양성, 투자기회,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 등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풍요와 평등성뿐만 아니라 보다 나

은 물질적 상태로 성취기회의 보장을 뜻한다.

셋째, 공공적 구성요소를 들 수 있다. 공공적 구성요소는 보건, 위생, 교육의 기회, 공공안전 등 지역사회 또는 국가가 전체 주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이다(Sirgy, 1986). 이러한 공공적 구성요소는 개인의 힘으로는 성취시키기 어려운 일들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기능들이다.

넷째, 사회적 구성요소를 들 수 있다. 1인당 GNP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양은 시장에서 교환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사람은 시장 이외에서의 활동, 예컨대 여가활동,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질, 도시화로 인한 인구조밀, 사회이동의 가능성 등 수입의 수준 이외의 속성들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더욱 중요한 속성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 구성요소는 위에서 언급한 자연환경적, 경제적 및 공공적 구성요소를 제외한 나머지의 여러 분야, 예컨대 주택, 인구, 정보통신, 여가선용, 사회병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OECD, 1982).

따라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네 가지 구성요소들의 구체적인 변인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변인들을 사회지표(social indicator)라고 한다(Bauer, 1966; Bunge, 1975).

## 2. 환경과 삶의 질 간의 메카니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삶의 질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편의성, 안전성 및 쾌적성으로 귀착한다. 그리고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영역은 모두 개인 외부에 존재하면서 개인의 삶의 양식을 결정지어 주는 결정요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경제적 구성요소, 공공적 구성요소 및 사회적 구성요소는 개인에게 있어서 사회환경에 해당되고, 자연환경적 구성요소는 자연환경에 해당된다. 따

라서 개인의 삶의 질은 크게 사회환경과 자연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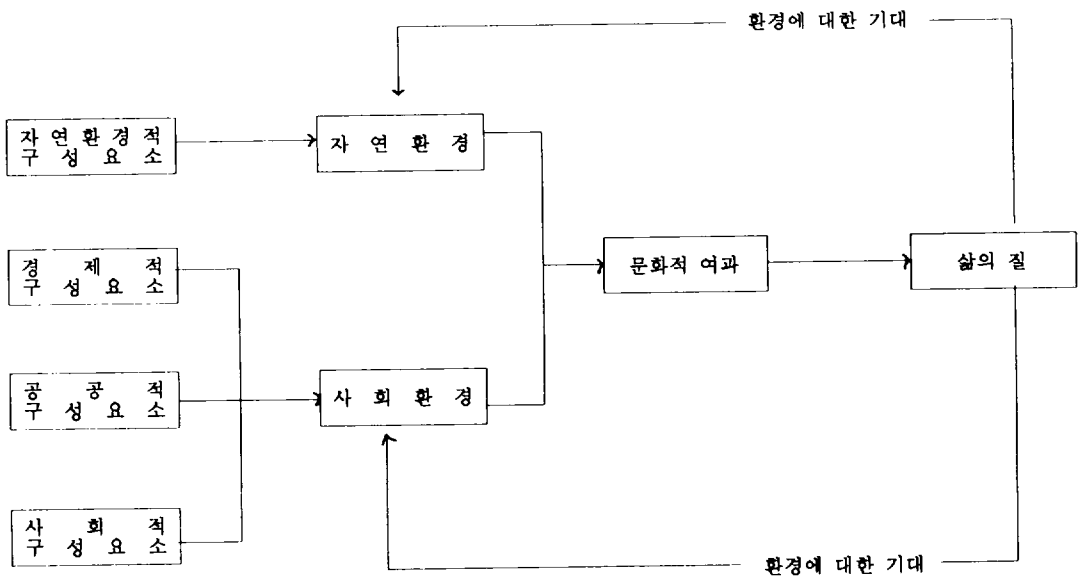
이러한 네 가지 개별 구성요소들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객관적 조건들이다. 그러나 사회학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의하면 인간은 객관적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에 대한 각자의 인식에 기초하여 그 객관적 조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이 해석은 곧 각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결정지어 주는 요인이 된다(Dalkey and Rourke, 1971; Allardt, 1972; Campbell, 1981; Sirgy, 1986). 따라서 객관적 조건에 대한 각자의 인식은 주관적인 심리적 요소이고, 이 심리적 요소는 각 개인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객관적 조건에 대한 각자의 문화적 배경에 기초한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문화적 여과(cultural filter)라고 할 수 있다(Pepper, 1989: 20~26).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주어진 조건으로서의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에 대해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의해, 즉 문화적 여과를 매개로 하여 각자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일한 문화적 여과를 거쳤다고 하여 삶의 질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얻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각기 다른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이 어떠해서면 좋겠다는 기대(expectation)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지어 주는 하나의 매개변인이 된다. 이 기대는 자신의 삶의 질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주어진 환경의 실제 상태와는 관계없이 '이러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면 환경과 삶의 질 간의 메카니즘은 <그림 4>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 4> 환경과 삶의 질 간의 메카니즘



〈그림 4〉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인간에게  
 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실제의 환경'보다는  
 '문화적 여과를 통해 인식된 환경' 및 '환경에  
 대한 기대'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설사 객관  
 적으로 자연환경이 아무리 쾌적하고, 사회환  
 경이 아무리 건전하다 하더라도 각 개인이  
 '오염되어 있다'고 인식하거나 아니면 '쾌적성  
 이 아직 나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아  
 니면 이보다는 더욱 쾌적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삶의 질은 만족한 수준에 이르  
 지 못하게 된다.

## V. 결론 :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안의 모색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환경의 개념, 환경에  
 대한 관점, 환경문제의 뜻과 발생 원인, 환경  
 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의 문제를 얼마나 협소  
 한 시각에서만 다루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면 이 새로운 접근 방  
 안은 결국 환경의 개념에 대한 이해, 환경문  
 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환경과 삶의 질의 관  
 계로 귀착된다.

### (1) 환경의 개념에 대한 이해

환경의 의미를 자연환경에만 국한시켜 협소  
 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림 1〉에서 보듯  
 이 사회환경까지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이해하  
 여야 한다. 그리고 〈그림 2〉에서 보듯이 환경  
 체계는 상호 유기적 연관 속에서 있고, 사회  
 환경이 자연환경의 파손 또는 오염을 발생시  
 키는 근원적인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원적인 원인에는 별로 관심없이 결

과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것은 마치  
 호미로 막을 물을 나중에 가래로 막는 우매함  
 이다. 따라서 사회환경의 올바른 제도화가 자  
 연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가져다 준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2)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환경문제가 문제시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  
 의 삶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환경문제는 환경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  
 림 3〉에서 보듯이 환경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  
 은 산업화이고, 이외에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에 대한 관념, 인구증가, 생산기술의 형태도  
 그 원인이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는 이 네 가  
 지 요인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여야  
 해결이 가능하지 오염규제 등과 같은 소극적  
 조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다.

### (3) 환경과 삶의 질의 관계

삶의 질의 궁극적 종착점은 편의성, 안전성  
 및 쾌적성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삶의 질  
 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환경의 상태에  
 대한 문화적 여과 및 기대를 통한 주관적 인식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객관적 환경의 개  
 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객관적 환경  
 에 대한 주관적 인식 및 기대가 어떠한지도 꾸  
 준히 조사연구될 때 비로소 환경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림 3〉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제도  
 에서 환경문제 발생의 근원적 원인인 산업화  
 는 인간의 생활의 편의성은 증대시켜 주지만  
 안전성과 쾌적성은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인간과 환경, 특히 인간과 자연  
 환경 사이에는 문명의 시초부터 서로 모순관  
 계에 있고, 산업화는 이 모순을 더욱 부추겼

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경과 개발이라는 모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있게 해결하느냐가 곧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는 길이라고 하겠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환경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개발의 제약조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조화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곧 앞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제시된 네 가지 요인들간의 조화이다. 즉 첫째, 환경, 특히 자연환경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과 공존하는 존재물이라는 가치의식의 정립이 필요하고, 둘째, 자연환경의 파괴 및 오염은 직접적으로 물리

적 인공환경에 의한 것이고, 물리적 인공환경은 사회제도라는 사회환경에 의해 그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제도를 정비 또는 개선하여야 할 것이고, 셋째, 산업 노동력에 적정한 수의 인구조절도 필요하다. 넷째, 개발은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병행하면서 새로운 생산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의 조화가 한 마디로 말하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정수, 1992,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한국환경경제학회, 「환경경제연구」, 제1권, 29~41쪽.
- 노용희, 1988, 「환경과 도시」, 서울: 녹원출판사.
- 박동원과 손명원, 1990, 「환경지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봉규 외, 1993, 「인간환경」, 서울: 동성사.
- 오호성, 1992, "환경우선론, 성장우선론 그리고 지속적 발전론과 환경경제학", 한국환경경제학회, 「환경경제연구」, 제1권, 1~28쪽.
- 유동운, 1992, 「환경경제학」, 서울: 비봉출판사.
- 정대연, 1989, "생태구조와 변동의 분석틀", 홍승직교수 화갑기념 논총, 「사회변동과 사회과학 연구」, 233~252쪽.
- 정대연, 1995, 「사회과학 방법론 사전」, 서울: 백산서당.
- 한홍열 외, 1989, 「자연과 인간」, 서울: 신라출판사.
- Allardt, E. 1972, *A Frame of Reference for Selecting Social Indicators*, Helsinki: Commentations Scientarum Socialium.
- Bauer, R. A. (ed.) 1966,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 Borgstrom, G. 1969, *Two Many - A Study of the Earth's Biological Limitations*, New York: Macmillan.
- Bunge, M. 1975, "What is a Quality of Life Indicat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 pp. 65~79.
- Caldwell, L. K. 1971, *Environment: A Challenge to Modern Society* (서남동과 김영운 역, 「환경: 인류의 생존과 생태학적 도전」, 서울: 현대사상사, 1973).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ommoner, B. 1972. *The Closing Circle Confronting the Environmental Crisis*, London : Cape.
- Dalkey, N. C. and D. L. Rourke 1971. "The Delphi Procedure and Rating Quality of Life Factor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ssessments of Delphi Procedures with Group Value Judgements*, California : Rand Corporation, pp. 200~210.
- Ehrlich, P. 1974. *The Population Bomb*, New York : Ballantine Books.
-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73. *The Quality of Life Concept*, Washington.
- Fox, K. S. 1974.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Theor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Hardin, G. 1968. "Tragedy of Commons", *Science*, Vol. 162, pp. 1243~1248.
- Hawley, A. H. 1981. *Urban Society: An Ecological Approach*,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
- Kahn, H. et al. 1979. *World Economy Development, 1979 and Beyond*, Boulder : West View Press.
- Lancaster, A. 1971. *Consumer Demand: A New Approach*,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e, B. C. 1975. "Quality of Life : Concept, Measure and Result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34, pp. 3~18.
- Meadowest, D. et al. 1972. *The Limits to Growth*, New York : Universe Books.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82. *The OECD List of the Social Indicators*, Paris : Andre-Pascal.
- Pepper, D. 이명우 외(역), 1989.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London : Routledge and Kegan (이명우 외 역, 『현대환경론』서울 : 한길사).
- Ross, J. D. 1970. "The Provincial Government's Role in Environmental Quality Maintenance", in M. A. Ward (ed.), *Man and His Environment*, Oxford : Pergamon Press.
- Schneider, M.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6, pp. 297~305.
- Schumacher, E. F. 1973. *Small is Beautiful: Economics as if People Really Mattered*, London : Abacus.
- Sills, D. L. 1980.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5, New York : Mcmillan and Free Press.
- Sirgy, M. J. 1986. "A Quality-of-Life Theory Derived from Maslow's Developmental Perspective : 'Quality' is Related to Progressive Satisfaction of a Hierarchy of Needs, Lower Order and Higher",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 45, pp. 329~342.
- Sontag, M. S., M. M. Bubolz, J. B. Eicher, and S. J. Evers 1980,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7, pp. 103~116.
- Toynbee, A. 1972. "The Religion Background of the Present Environmental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Crisis*, Vol. 3, pp. 141~146.
- White, Jr., L. 1967,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Vol. 155, pp. 1203~1207.